

서운영의 집과 사람



경교장의 당구실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다. 임시정부 시절 김구 선생의 집무실인 경교장(사적 465호, 서울 시 종로구 평동 108-1번지 혹은 새문안로 29)을 복원하면서 그 곳에 당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독립과 통일운동에 힘써야 할 선생께서 당구나 치면서 소일했던 말이나”라며 다들 공분했는데, 경교장에는 왜 당구실이 있었던 걸까. 본디 경교장은 일제시대 금광사업으로 큰 돈을 모은 최창학이 1938년 자신의 사저로 지은 건물로, 처음 이름은 죽첨장(竹添莊)이며, 건립 당시인 19세기 유럽 귀족의 주거문화를 충실히 모방하고 있다. 중세의 유럽 귀족은 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광대한 영지에 자신의 성관(城館)을 짓고 살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이 당구실(武藏室)이었다. 귀족은 특권이 많은 만큼 의무도 많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의무가 국가 위급 시에 몫수 무장을 하고 농노를 병사로 조직하여 전쟁에 참가하는 일이었으니, 무기실은 갑옷과 무기를 두는 방이자 귀족과 기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이었다. 그런데 근세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귀족과 기사 계급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층이 성장

하기 시작했다. 칼과 방패가 아닌 의복, 법률, 금융 등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신흥계층들이었다. 이들은 신사(gentry, gentleman)라 불렸는데 기존의 무기실 대신 새로운 정보를 얻고 전문지식을 익히기 위한 장소로서 서재가 중요하게 되었다. 18~19세기 신사의 모습은 ‘셜록홀مز’ ‘위대한 유산’ 등에 묘사되어 있는바, 대개 엄청난 서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중세를 무대로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무기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서재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신사라는 신흥계급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방이었다. 한편 중세 귀족과 기사가 몰락해감에 따라 무기실도 구석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200여 년 간에 걸친 유럽 귀족주택의 변화과정을 지켜보면 무기실이 점차 쇠퇴하고, 중세 말기 골방과 다름 없었던 서재가 점차 비대해지면서 전면에 등장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사계층이 쇠퇴하면서 신흥 신사계급이 성장하는 사회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시기의 소설 ‘돈키호테’에서 때로 무도

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된 기사의 모습은 쇠락해가는 그의 슬픈 자화상이다. 왕으로부터 직접 하사 받은 보검은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유물로 남게 됐다. 본디 실권을 위한 중세의 검술이 펜싱이라는 현대의 스포츠로 변하면서 무기실은 검술연습실 내지는 당구실로 변하기도 했다. 지금도 당구장 유리창에 흔히 그려져 있는, 큐대를 X자로 교차시키고 당구공 네 개를 배치해 놓은 그 당구장 표시(※)는 두 자루의 칼과 투구, 방패를 예전의 무기실 벽면에 걸어놓던 풍습에서 유래한다. 당구실은 검술과 당구 등 실내스포츠를 즐기는 방이자 미혼의 젊은 남자들이 모이는 방이기도 했다. 장년의 아버지가 주로 머무는 곳이 서재였다면 젊은 아들과 그 친구들이 모이는 방이 당구실이었다. 19세기 귀족 주택에서 당구실과 서재는 남자의 공간으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방이었고, 그 모습은 1938년 최창학의 죽첨장에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집으로 지하에는 부엌과 창고가 있으며, 1층은 손님 접대를 위한 응접실, 식당, 연회장 및 당구실, 2층에 침실이 있었다.

해방 후 이곳이 김구 선생에게 제공되어 명칭이 경교장(京橋莊)으로 변하였고, 1949년 선생이 암살당할 때까지 집무실과 숙소로 쓰였다. 이후 외국대사관, 미군주둔 사무소 등 혼란스러운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왔다. 얼마 전까지 병원으로 사용되다가 새로이 복원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1층에 당구실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건축에서 어떤 방의 명칭이 정해지면 본래 용도와는 달리 처음의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주택에서 서재라 불리는 방이 실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가장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실(私室)의 자제로 불리는 것처럼 당구실도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 독립운동의 특성상 젊은 남성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선생이 사용하는 서재 외에 열사들이 모이는 방으로서 당구실이 필요했을 것이다. 실제 그곳은 당구실이 아닌 선전부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경교장에 당구실이 있던 이유였다. 경교장의 당구실 복원 논란은 이 모든 상황에서 빚어진 하나의 해프닝이었다. (건축 칼럼니스트)

社說

정당공천 폐지 혼란, 박 대통령이 나서라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아직까지 ‘계입의 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갑자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철회와 구의회 폐지, 교육감 러닝메이트 등을 들고 나와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7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환영한다는 논평까지 냈었다. 새누리당의 판소리로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가동 중이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활동 시한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선거 입지자들은 다음달 4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하고, 후보 방침도 정해야 하나 선거제도가 불투명해 애만 태우고 있다. 새누리당의 돌변은 공천을 폐지할 경

우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거 최대 표방인 수도권 등에서 입의 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갑자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철회와 구의회 폐지, 교육감 러닝메이트 등을 들고 나와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7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환영한다는 논평까지 냈었다. 새누리당의 판소리로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가동 중이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활동 시한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선거 입지자들은 다음달 4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하고, 후보 방침도 정해야 하나 선거제도가 불투명해 애만 태우고 있다. 새누리당의 돌변은 공천을 폐지할 경

장례식장 횡포 민생침해사범으로 다뤄야

광주·전남에서 일부 악덕 장례식장의 횡포와 비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상(喪)을 당한 사람들의 애절한 심정을 노려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업자는 제수용품을 속여 판매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례업계와 유족들에 따르면 상당수의 장례식장이 장의용품과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재질과 원산지를 속여 이용객에게 바가지지를 씌우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또한, 조문객들의 규도를 벗어난 많은 음식을 주문한 뒤 반쯤을 거부해 큰 부담을 지우기도 한다. 상을 당한 유족들은 악덕업자들의 횡포를 뻔히 알면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만일 시비라도 벌어지면 정례히 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당국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교묘한 눈속임과 억지를 부리고 있으나 유족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소언이다. 이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지만 ‘뒷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찰은 광주지역 38곳, 전남 114곳을 대상으로 ▲저가 중국산 수의의 국내산 둔갑 판매 ▲제단 조화 및 제수음식의 재사용 ▲장의용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에 대해 중징 수사를 펴겠다고 한다. 화장장 예약을 무더기로 해놓고, 웃돈을 얹어 피하는 행위도 엄단하겠다는 의지다. 장례는 가족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사망했던 이들의 죽음을 맞아 최선의 의식으로 영혼을 달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도 장례식장들이 돈벌이에만 골몰하는 것은 민생침해사범이나 다를 바 없다. 남의 죽음을 상술로 연결한다는 게 가장한 일인가. 경찰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는 장례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일벌백계는 물론이다.

종교칼럼

참 정겨운 이름, 이웃종교



송지은 원불교 교무·광주원음방송 편성제작팀장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내 종교가 소중함 만큼 남의 종교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배려의 문화가 절실한 시대다.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웃종교에 대한 편견을 놓고 바른 이해와 소통, 교류와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겠다. 원음방송은 설립 때(1998년)부터 이웃종교의 소식과 교리, 역사, 문화, 사상 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종교협력 프로그램 ‘동근소리 동근이야기’를 제작, 방송하게 되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12년간 종교협력 프로그램을 제작, 진행하면서 원음방송에 출연한 수많은 종교인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종교가 다른 이웃종교의 방송에 생뿔 출연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가까이 협력해 준 각 종교 성직자와 신자, 종교학자, 각 종교신문 기자들 그 밖에 종교행사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이웃종교인에게 새삼 감사의 마음이 앞선다. 지난 12년간 종교협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동안 참으로 많은 종교인과 만났고, 그분들의 삶을 엿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초대 손님들은 참으로 다양한 사회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들도 많았지만 때로는 크게 드러난 분들도 있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명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사는 가슴 따뜻한 분들이었다.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주방장 사님, 말기 암환자들을 돌보는 스님, 동성애자들의 이름을 달래주는 목사님, 수물들도 안 나오는 빈민촌에 사는 신부님, 그리고 검정치마가 맘에 들어 하얗게 될 때까지 수제 민들기에 여념이 없던 교무님 등 개인의 안락과 행복은 저만치 밀어놓은 채 이들과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도 결코 놓지 않고 함께 가는 그런 분들이었다. 또 수 십년 통일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힌 도반스님을 만나고 나오면서 남몰래 울었다는 스님, 사형수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고 시신을 거둘 때마다 목이 맨다는 목사님, 가솔 청소년들을 돌보다가 아이들 때문에 경찰서를 내 집 드나들듯 하던 신부님, 생후 7개월 된 핏덩이 자식을 본국에 보내고 그리워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교무님 등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아픈 사연

과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사는 이 시대 아름다운 종교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접하는 순간들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건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적이 없다는 것이다. 후회 없는 선택이고 후회 없는 삶이어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종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커다란 감동을 선물 받곤 했다. 지난해 4월 원음방송 본사(서울)에서 광주원음방송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왔을 때 원불교 최대절친인 대가교절을 축하하는 예쁜 양란이 원음방송에 배당되었다. 광주원음방송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웃종교 성당에서 보낸 선물이었다. 이곳 광주에서도 이웃종교 간에 교류와 협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단번에 체험할 수 있었다. 희망찬 청마의 해 갑오년이 밝았다. 올 한 해도 참 정겨운 이름, 이웃종교가 지역마다 동네마다 서로 협력해서 소외된 이웃들과 마음을 나눴으면 한다. 은혜와 자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멋진 풍경들이 그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상 있어 온 문제이긴 하지만, 현대산업사회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핵가족화로 인하여 인간관계의 단절 즉 고독은 노인들에게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한결같은 가장 큰 소원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원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실현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도 이제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인생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보건의료의 개선으로 돌연사자 사고사, 자살 등을 제외하면 인구 대부분이 90세 이상의 장수를 누리겠지만 인구 고령화로 노인세대가 급증하고 특히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숨을 거두어도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숨진 지 5년 만

에 백골상태로 발견되는 일도 있다. 이처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현재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125만 2000명으로 전체 613만 8000명의 20.4%에 해당된다. 노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고독사의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3분의 1은 치료를 위한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이지만 이들 중 42%는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과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연락조차 안 한다는 노인도 4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은 37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6%에 달하며, 홀로 사는 노인 역시 11만5000명에 달한다. 이렇듯이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노인 장애와 허약 노인 등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서비스도 다양화되고 있다. 홀

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 및 전화서비스를 제공 하는 ‘독거노인 돌봄미 사업’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미 사업’ 그리고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드리면서 안전을 확인하는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과 ‘도시락 배달’ 등도 각광을 받고 있다. 사회에서 소외되는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고독사와 같은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본다. 특히 고독사는 혼자 사는 노인들과 일정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후면 최대 명절인 설이 곧 다가온다. 명절이 되면 홀로 사는 노인들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때이다.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훈훈하고 기쁜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선물한 책이 그 소설이 아니었어도, 그의 아내는 결혼생활을 포기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듯하다. 그가 건네준 책이 신경 속의 ‘엄마를 부탁해’였거나, 에밀리아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었다면 어땠을까. 남편의 불륜에도 결혼을 지키려했던 아내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책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니,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지 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데는 7년이 걸렸다. 드라마에 노출된 책이 인기를 얻고 있다. SBS ‘벌에서 온 그대’에 등장한 ‘에드워드 틀레인의 신간하 여행’, ‘주군의 태양’의 ‘폭풍우 치는 밤에’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단순히 주인공이 즐겨 읽거나, 소품 역할을 하는 데서 벗어나 스토리의 복선을 암시하는 등 ‘책’ 자체가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기 드라마에 등장했다 해서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는 상황을 쓸쓸해 하는 로렌티노 아리사의 이야기까 아닌가. 무려 ‘51년 9개월 4일’을 기다려 그 사랑을 얻고 “우리 목숨이 다 할 때까지” 항해를 떠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니

드라마속 ‘그 책’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본부 2200-515	문화 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1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12	문 화 2부 2200-651	광고이케팅국 2200-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여 문 화 2부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체 육 부 2200-697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조 서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짜 훈제계란 등 ‘먹을거리 장난질’ 엄벌해 주요

우리나라의 찜질방 문화는 해외에서 한국의 독특한 휴식문화 중 하나로 소개될 만큼 유명해졌다. 찜질방은 값도 싸고 몸을 씻은 상태에서 복장도 자유롭게 편히 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서민들 누구라도 부담없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만큼 인기에도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좁은 가정집에 많은 손님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간편 속소로 활용될 수 있기도 하다. 이 찜질방의 모미 중 하나는 느긋하게 앉아서 훈제 계란을 꺼먹는 재미다. 물론 찜질방 안에서 먹는 군것질거리가 훈제계란만 있는건 아니지만 찜질방에 가면 훈제계란은 흔히 맥반석에 구워준다고 선전하며 가격도 비싸다.

그렇다면 과연 이 훈제 계란은 맥반석으로 굽는 것일까.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 TV를 봤을 걸로 안다. 이날 TV방송에서는 실로 경악할만한 내용이 나왔다. 즉 훈제계란은 표면에 식용색소로 색칠을 해서 훈제인 것처럼 속인다고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전파를 탔다. 집에서 TV를 보다가 토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런 것도 모르고 찜질방에서 훈제 계란이 역시 맛있다고 칭찬까지 해가며 비싸게 돈 주고 사먹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

고 화가 나는 일인가. 거기다가 공업용 알코올도 사용하고 고열까지 계란 내부에도 침투해서 인체에 좋을 리없다고 나왔다. 그렇게 가짜 훈제계란을 만드는 공장 유행상태도 상당히 지적받았다.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엄벌하자는 의견이 많다. 정말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만 돈 벌면 가려하는 식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에 철위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 ▲이학식·광주시 광산구 양산동